

민주당 독점 지방의회 연이은 ‘꿀불건’

여수시의회 국회의원 지역구 따라
원내대표 선출 등 사안마다 신경전
광주선 예비뽑기·음주전력 구의장

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한 광주·전남 지방의회
의 꿀불건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.
수적 우위를 앞세워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의원
들이 잇따라 의장에 당선되는가 하면 차기 총
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따라 파벌이
나뉘어 사안마다 대립하는 등 여전히 변화와
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센 비난이

나온다.
18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여수시의회는 지난
12일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단독후보로 출마
한 백인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.
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여수를 지역위 의원
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면서 원내대표 선출 ‘원
천 무효’를 주장했다.
여수를 지역위 의원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
“협치가 되지 않은 원내대표 선출은 지역 발전
을 저해하고, 분열과 갈등만 극대화시킬 것”이
라며 “갑 지역 단독으로 처리된 원내대표 선출
은 무효”라고 주장했다.
여수시의회 의원은 총 26명으로 민주당 22
명, 무소속 4명으로 구성돼 있다. 이중 민주당

갑 지역위가 12명, 을 지역위는 10명이다.
당내 주요 안건을 두고 갑 소속 의원들의 일방
적인 추진이 불가피한 구조로, 앞서 전반기 원구
성 과정에서 갑·을 의원들간 갈등이 격화되기
도 했다. 을 소속 의원들은 부의장 선거에서 갑
소속 의원들이 당의 지침을 어기고 무소속 의원
들에게 대거 투표했다는 이유로 본회의를 불참
해 파행을 빚었다.
여수 지역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확정
으로 국회의원 지역구가 1곳으로 줄어들 가능성
이 있어 갑·을 지역위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
다는 지적이 나온다.
앞서 광주 광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
전반기 의장을 예비뽑기로 선출하는 촌극을 빚

었다.
광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제9대 의회
개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예비뽑기를 거쳐 재
선인 김태완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. 갑·
을 지역위가 각각 내세운 후보 간 합의 추대가
이뤄지지 않으면서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예비
뽑기라는 조유 사태가 발생한 것.
광산구의회 정원은 18명으로, 이중 민주당 갑
·을 지역위 소속 구의원은 각 7명씩을 동수다.
이를 두고 구의회 안팎에서는 민주당 내에서조
차 협치와 타협이 실종된 그들만의 민주주의 방
식이라는 비판이 거셌다.
한편, 예비뽑기를 통해 9대 광산구의회 전반
기 의장에 오른 김태완 의원과 역시 9대 동구의

회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재식 의원의 경우 각
각 성추행 혐의와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입살
에 오르고 있다.
김태완 의원은 초선 시절이던 2019년 노래방
에서 일행과 연인 관계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
로 경찰에 입건됐고, 당시 3개월가량 수사를 진
행한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김 의원을
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. 김 의원은 형
사처벌은 피했으나, 공인으로서 처신이 적절치
못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일었다.
초선 의장직에 오른 김재식 의원은 2011년 1
월 음주운전으로, 약 한 달 뒤에는 무면허운전으
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“민주당이 절대 우위
를 점한 광주·전남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줄서
기와 잣밥에만 눈독을 들이면서 임기 시작부터
분열과 갈등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”며 “6·1
지방선거 이후 요구되는 변화와 혁신은 안중에
도 없다”고 지적했다.
/오선우 기자



설훈 의원, 5·18 묘지 참배
당대표 출마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18일 오후 광주 북구 윤정동 국립5·18
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. /연합뉴스

전남농기원, 라이브커머스 방송 효과 ‘톡톡’

강소농업인 대상 진행 호평

전남농업기술원이 강소농업인을 대
상으로 진행한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특
독한 효과를 내고 있다.
전남농기원은 18일 “지난 11일부터
5일 간 지역 강소농업인을 대상으로 라
이브커머스 전문가 육성교육과 판매방
송을 함께 진행해 호평을 받았다”고 밝
혔다.
이번 방송은 라이브커머스 교육과정
을 수료한 18개 시군의 우수 강소농업

인들이 참여해 직접 재배하고 가공한
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등 소비자와
실시간 소통으로 진행됐다.
방송에는 보성 표고버섯, 강진 감자
반, 해남 밤호박, 순천 송화버섯 등이 선
보였다. 신안의 강현구 대표는 통참깨,
참기름을 판매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
끌었다.
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가 온라
인을 통해 직접 농산물을 간편하게 구
매하는 라이브커머스로 소비 형태가 바
뀌면서 농업인들의 브랜드 홍보 수단으

로 각광받고 있다.
전남농기원은 농산물 판매·마케팅에
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
라이브방송 스토리 기획 및 촬영장비 활
용실습을 통해 스스로 방송을 기획하고
송출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 있다.
전남농기원 박용철 기술지원국장은
“강소농업인들이 라이브커머스 등 새
로운 유통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보할
수 있도록 마케팅 교육 지원 및 컨설팅
을 꾸준히 실시하겠다”고 말했다.
/정근산 기자

제5기 광주자치분권협의회 첫 회의 개최

현황·과제별 계획 공유

광주시는 1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
제5기 광주자치분권협의회 첫 회의
를 열고 자치분권 추진현황과 계획
등을 공유했다.
광주자치분권협의회는 2014년 3
월 최초 구성됐으며, 제5기 협의회는
시의회, 학계, 언론계, 시민 활동가
등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됐다.
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최성욱
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, 부위원장

에 이상현 변호사가 선출됐다.
광주시는 그동안 자치분권 정책 추
진의 성과,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
에 따른 과제별 추진계획 등을 총괄
보고했다. 이어, 자치분권협의회 위
원으로 위촉된 김대성 광주전남연구
원 선임연구위원이 ‘자치분권 2.0과
민선8기 광주’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
민선8기 자치분권정책의 변화와 지
방분권개헌 등 과제, 공공문제 해결
을 위한 속의제도 활용 등 민관문제
해결을 위한 거버넌스를 제안했다.
김일웅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
“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지방
분권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대한민국
자치분권은 지속 성장해갈 것으로 기
대한다”며 “광주가 자치분권 선도도
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주체
적 역량을 모아 달라”고 주문했다.
한편, 제5기 광주자치분권협의회
는 2024년 3월까지 2년 동안 광주지
역 자치분권 정책 수립과 시행, 주민
교육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한다.
/김일웅 기자

전남선관위, ‘허위 학력 기재’ 기초의원 고발

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“지방
선거 벽보와 공보에 허위 학력을 기재
한 혐의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
고발했다”고 밝혔다.
선관위에 따르면 A 의원은 선거 벽보
공보에 B고교를 입학한 사실이 없음에
도 ‘B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(전)’
이라고 허위의 경력을 기재 공표한 혐
의를 받는다.
조사 결과 A 의원은 해당 학교 총동
문회 정식 명칭인 ‘B 중고등학교 총동

문회 부회장(전)’을 사용하지 않고 B
중학교를 빼고 B고교 총동문회 부회장
(전)으로만 기재 공표했다.
해당 중고교 총동문회 부회장을 맡았
던 A 의원은 B 중학교를 졸업하기는 했
지만, B고교의 경우 입학 사실이 없는
것으로 확인됐다.
이 같은 공표 내용은 유권자들에게 A
의원이 B 고교를 졸업한 것처럼 보이는
잘못된 정보를 준 것으로 선관위는 판
단했다.

관련 법은 후보자 학력 경력 등에 관
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
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
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전남선관위 관계자는 “학력은 후보자
의 실적과 능력 등을 유권자에게 강하게
인상 지우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
커 중대범죄로 조치한다”며 “입학 또는
졸업 사실이 없음을 반드시 밝히고 중퇴
한 경우 그 재학 기간까지 기재해야 한
다”고 말했다.
/오선우 기자

정기 브리핑

민형배 “불법주차 갈등 해소 주차장법 개정”

무소속 민형배 의원(광주 광산을)은
18일 “부설주차장 진출입로 방해 및 이
중주차에 대해 관리자가 차량 이동 권
고를 기능도록 하는 ‘주차장법’ 개정안
을 대표발의했다”고 밝혔다.
현재는 공공 개방 주차장에서만 주차
질서 위반행위 조치가 가능해 공동주
택,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 갈등
이 이어지고 있고, 불법주차 민원도 증
가하고 있다.

개정안은 부설주차장 내 진출입로 방
해,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
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
도록 했다.
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관리자
는 자치단체장에게 자동차를 미리 지
정된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
한 장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. 자치단
체장은 다른 차량 주차 방해나 자동차
교통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 조치

할 수 있도록 하
는 내용도 담고
있다.
민의원은“심
한 주차갈등은
재물손괴 심지
어 상해나 살인
까지 이어지기
때문에 더이상 개인 간 문제로 방치해
서는 안된다”며 “법 개정을 통해 주차
질서가 정립되고 시민불편과 갈등이 해
소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/서울=강병운 기자

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.

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. 어르신들에게 신체적,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,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.